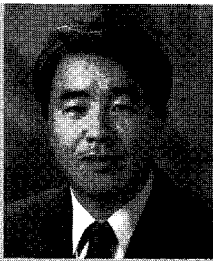


고분자기능성 필름 주력, 업계 선도

소비자 니즈 부합, 소프트가 강한 기업으로 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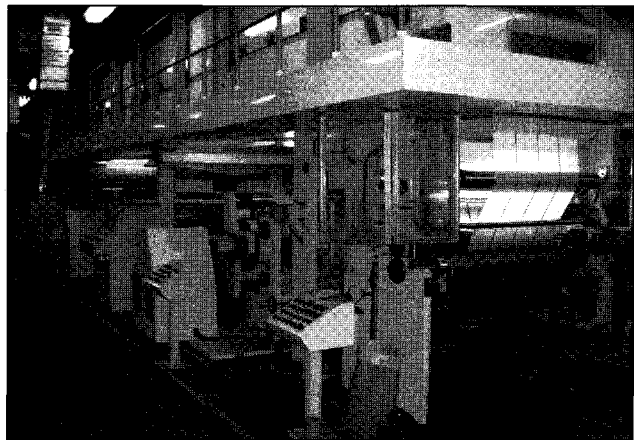
황 중 국
(주)프로템 대표이사

(주)서통은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OPP, CPP, PET 필름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하며 발전해 온 필름사업본부와 기계전문회사인 서통테크놀로지, 포장지업체인 유니랩 등을 계열사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거둬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 악화, 2003년 최종 부도처리된다.

서통 계열사 가운데, 기계회사였던 서통테크놀로지 역시 모기업의 부도에 따른 경영난으로 직결, 막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3년 (주)서통에 입사한 이후, 배터리 개발부와 필름사업본부를 거쳐 필리핀(BCPI) 지사에 근무하면서 (주)서통 전 사업부문에 걸쳐 배태량으로 거듭난 황중국 사장.

그는 1993년 (주)서통 기계사업부장으로 재임하면서



▲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주)프로템 생산설비



▲ 경상북도 구미 공단동에 위치한 (주)프로템

모기업의 부도에 직면, 2003년 9월 1일 서통테크놀로지(주) 신법인을 설립하며, 지금의 (주)프로템(대표이사 황중국)을 이끌어 오게 됐다.

2003년 11월 한국 무역협회 무역업으로 등록한 이후 이듬해 5월 구미 공장을 매입한 서통테크놀로지(주)는 (주)프로템으로 상호를 변경,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등 현재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필름 제조 및 컨버팅(Converting) 설비분야에서 20여년간 현장 유지 및 정비 업무에서 설계, 영업, 경영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주)프로템을 이끌고 있는 황

중국 사장.

그러나 발전초기, 임직원들과 함께 태스크 포스(task-force)팀을 구성, 3개월 이상 밤샘작업을 하는 등 (주)프로템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어려움은 술하게 많았다고 회상한다.

지난해, 주변의 만류에도 공장 부지가 고가(高價)인 구미 1공단으로 공장을 매입, 이전한 (주)프로템.

황 사장은 프로템의 컴퍼니 밸류(company value)를 높이는데 최종 목표가 있었다고 전한다.

실질적으로도 (주)프로템은 기계 수요자 사이에서 이미, 컴퍼니밸류(company value)

가 정립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도 (주)프로템은 기계 사용자 입장에서 설비를 제작, 설비 운전의 편리한 방법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운전 중에도 유지보수가 가능해, 소프트웨어가 강한 회사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주)프로템은 연포장 필름, 콘텐서용 필름, 의약품 패취, 점착 테이프, 종이, 부직포에 적용되는 슬리터-리 와인더(Slitter-Rewinder), 코터(Coater), 라미네이터(Laminator), 테이크업와인더(Take-Up&Winder), 쉬트커터(Sheet Cutter) 등의 컨버팅 기계류를 주 아이টে็ม으로

PROTEM

생산하고 있다.

특히 6.5m 이상 장폭의 원단을 슬리팅(Slitting)하여 700m/min 이상의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1.2마이크론의 초박막 원단을 컨트롤 해 내는 등 기술력과 고객만족의 양 측면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는 보다 새로운 기술과 보다 나은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하는 황중국 사장은 연포장 업체를 초월, 고분자기능성 필름 시장

으로 탈변화를 추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현재, 고분자기능성 필름 업계는 편광필름의 경우 4조 7천억원, 광학용필름 4조8천억원, 전지재료필름 2조7천8백억원, 식품포장필름 7,470억원, 기타필름의 경우 720억원 정도로 그 시장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거대한 것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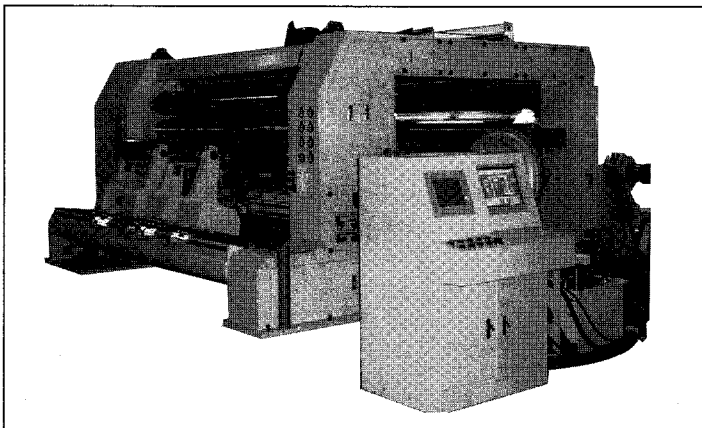
디지털과 인터넷이 중심이 되고 있는 IT 전문화 시대, (주)프로템은 이런 시장상황

을 조기에 파악하고 현재 전자, LCD, PDP 필름과 편광 필름, 위상차 필름 시장에 적용될 컨버팅(converting) 설비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해외 기술제휴 및 산학협동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설비를 제작하고 있는 (주)프로템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 수출 고객으로부터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 지난해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국내 컨버팅(converting) 업체를 선도하고 있다.

황중국 사장이 강조하는 제 1의 경영철학은 바로 “인간중심의 경영”이다. 그는 기술영업부터 디자인,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사람이 한다’는 명제 아래, 직원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례로 (주)프로템은 상여금 800% 지급 이외에도 학자금, 경조사, 어학학습비를 지



▲ 슬리터-리와인더(Slitter-Rewinder)



▲ 코터-라미네이터

원하고 있으며 워크숍을 개최, 직원상호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근무 환경은 직원들의 아이디어 창출로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공장주변 조경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황 사장은 공장 현장 한편에 ‘사장실’을 두고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등 전임직원이 하나되어 (주)프로템을 이끌고 있다.

황중국 사장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단순하게 내구성이 강한 기계 제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는 “20~30년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내구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시간이 흐른 뒤, 몇 가지 유니트만 교체하면 새로운 기계로 탄생될 수 있을만큼 급변하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계 수주 이후, 원가를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품질과 설비 성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주)프로템은 위상차 필름 등 특수필름의 코터(Coater), 라미네이터(Laminator) 개발을 목표로 향후 IT 컨버팅 관련 업체의 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 가입을 통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공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황중국 사장은 소재산업의 취약은 설비의 취약을 야기시킨다며 다양한 기술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업계가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기계 판매를 목표로 한 해외 대리점이 아닌 A/S 기술력을 갖춘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주)프로템 황중국 사장. ‘부서별 전문화를 갖춘 작지만 강한 조직’ (주)프로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